"亞문화수도 광주-오스트리아 문화교류 첫 단추 소중한 계기"

■ '루벤스 展' 광주 온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 트르넥 관장

'오레이티아 납치…' 등 19점 루벤스, 제자 도움없이 그려

"오스트리아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의 가장 의미 있는 컬렉션인 루벤스 작품을 광주에서 전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유럽 미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문화수도 광주와 오스트리아가 문화 교류의 첫 단추를 채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많은 중세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 레나테 트르넥(55·Renate Trnek·회프래틴대학교 교수) 관장이 16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바로크 시대 작품은 전시 과정에서의 작품 훼손을 우려해 외국순회 전시를 자주 하지 않는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일본에서 순회전을 했고, 국내에서는 이번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레나테 트르넥 관장은 직접 광주를 찾았다.

그녀는 "루벤스는 풍부한 인체 표현과 역동적인 구성으로 세계 미술사에 많은 영향을 남긴 작가"라면서 "이번에 소개되는 19점은 루벤스가 제자의 도움 없이 손수 그렸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소개했다.

당시는 대형 아틀리에를 중심으로 대가의 작품을 여러 명의 제자들이 공동 창작했기 때문에 유명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손수 그린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오레이티아를 납치하는 북풍의 신(Boreas Abducting Oreithyia·1615년작)' '삼미신'(원제 The Three Graces·1620~1624년) 등은 루벤스가 직접 그린 대표작들이다.

특히 그녀는 안트베르펜 예수회 교회의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남긴 5장의 스케치 소품을 눈여겨 감상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오레이티아를…'이 유명하고, 일본에서는 '삼미신'이 인기있는 등 국가별로 좋아하는 루벤스의 대표작이 다르다. 이들 작품처럼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소품에는 1629년 부인을 잃고 고통 속에서 작품을 창작한 루벤스의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이다.

루벤스의 작법에 대해서도 그녀는 "나무에 갈색 빛의 안료를 넓은 붓으로 칠하고, 그 위에

유럽 바로크 미술 진수 한국서 감상 절호 기회

그림을 그리는 일명 '임프리미투라(imprimitur)'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인물들의 살에서 실핏줄처럼 푸른 빛이 비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빛2008'전 등을 둘러본 그녀는 "젊은 작가들의 기발한 작품에 놀랐다"면서 "오스트리아에 아직까지 광주비엔날레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 더욱 많은 교류가 이뤄져 양국 미술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오레이티아를…' 작품 값만 240억원

광주시립미술관이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에 전시되는 작품을 '아기 다루듯'(?) 하고 있다. 작품들이 모두 17세기에 만들어져 관리가 까다롭고, 총 보험가액만 2천500억원에 달하는 '귀하신 몸'들이기 때문이다.

루벤스의 작품 19점을 포함, 모두 75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비싼 작품은 '오레이티아를 납치하는 북풍의 신'이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루벤스의 작품이며, 전시 포스터에도 등장한 이 작품의 가격은 자그마치 240억원에 달한다. 아름다운 세 여신이 꽃이 담긴 바구니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담은 '삼미신'도 200억원이다. 운송, 전시 과정에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작품 훼손에 대비해 4억원대 보험에 가입했다.

또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도 작품복원사 아스트리드 레너(Astrid Lehner)씨를 작품 운송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 도착한 작품을 아스트리드 레너씨가 확대경으로 꼼꼼히 살펴 컨디션리포트를 작성했다. 또 작품보호를 위해 전시장의 적정 실내 온도(18~22도)와 습도(55%)를 확인한 뒤에야 작품을 내걸었다. 비엔나아카데미뮤지엄측은 고온 다습한 한국 특유의 기상 조건 때문에 수십 차례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한 뒤에야 작품 설치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시립미술관측도 온도 유지를 위해 한대에 100만원에 달하는 온도·습도계 10여대를 구입해 전시장 곳곳에 설치했고, 제습기도 8대를 급히 구했다. 나무판에 그려져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작품이 뒤틀리기 때문에 미술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있다.

전시장의 조명도 문제다. 종이나 염료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산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림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도를 촛불 다섯 개 정도의 밝기인 50럭스(lux)로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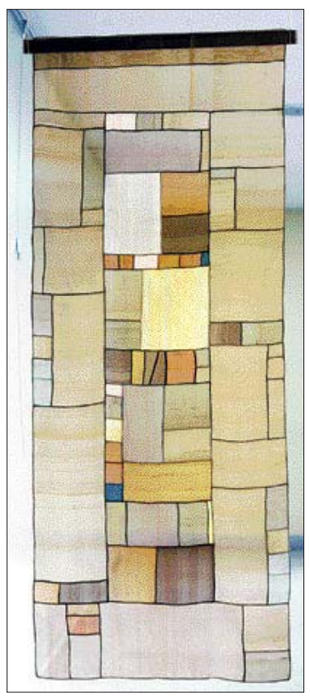
박지택 관장은 "이 작품들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기에 시민들도 품격 높은 관람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시는 11월9일까지 계속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수요일엔 밤 9시까지 연장한다. 문의 062-510-0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천연염색 조각보 뉴욕에 간다

이상필교수 '한미현대미술교류'전 초대



'wind, sound, light'

천연 염색 작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상필 (동신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씨가 8월5일~15일까지 미국 뉴욕 갤러리 훈(Gallery Hun)에서 열리는 '한미현대미술교류'전에 초대됐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 이씨는 조각보 형식의 염색 작품인 'wind, sound, light'를 출품한다.

이 작품은 바람, 소리, 빛을 주제로 자연의 다양한 형상들을 색과 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치자·홍화·자운영 등 자연의 식물에서 얻은 색소로 반투명한 실크에 착색한 후 조각조각을 엮어서 작품을 만들어 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풍경을 그리는 부감법(俯瞰法)으로 지상의 모습을 비단에 물들였다. 오묘하게 변하는 색깔들은 정교하면서 은근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전통 오방색을 격자 무늬로 배치해 현대적인 감각도 살렸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미국 뉴욕 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5월에는 일본 동경의 Q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어 호평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장영준 학예연구관은 "이 교수의 작품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우아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20여 년 전부터 천연염색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밀라노, 베이징, 동경 등지에서 매년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천연염색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아시아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금남공원 광장음악회 '능소화의 눈물'

19일 오후 7시, 정찬경 등 출연

옛 한국은행 자리에 조성된 금남공원에서 펼쳐지는 광장음악회가 19일 오후 7시 7월 공연을 준비했다.

'능소화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김혜미, 메조소프라노 서승희, 바리톤 정찬경 등이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날 잊지 말아주오' 등의 가곡과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돼 인기를 모았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Once upon a dream',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I feel pretty' 'Tonight',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삽입곡인 ' Moon River', 김민기곡 '아침 이슬' 등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김연주씨가 이끄는 광주플루트앙상블이 찬조출연, 비제의 '카르멘', 요한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와 흥겨운 가요·민요 모음곡을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화·애니메이션 창작 교실

亞문화도시홍보관, 40명 모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만화·애니메이션창작교실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분야별로 20명씩 선착순 모집, 무료로 진행된다.

오는 28일~8월1일(오후 3시) 열리는 '만화 창작교실'은 캐릭터 얼굴 그리기, 만화책 만들기, 만화책 제본하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박경철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8월 4일~8일까지(오후3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창작교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원리 알기, 스톱모션 촬영 등이 준비돼 있으며 강의는 권동현 교수가 맡는다.

과정이 모두 끝난 후 8월 9일 오후 2시에는 만화애니메이션 작품발표 및 시사회를 개최하며 16일~29일까지는 홍보관에서 만화·애니메이션 작품 전시회도 갖는다. 수강생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062-230-01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